

드라마가 만드는 '출세수단'

「남자는 의사로, 여자는 미모로」.

최근 TV 드라마 내용들이 주인공들의 신분상승을 꾀하는 수단으로 「의사」와 「미모」를 내세우는 경우가 부쩍 많아 전 전지 못한 가치관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드라마는 △SBS의 「이 남자가 사느법」 「자별」 「세남자 세여자」를 비롯해 △KBS2의 「남자는 의로워」 △MBC의 「사랑을 그대 품안에」가 대표적이다. 우선 SBS 「이 남자가 사느법」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송보(송승환)는 「고아신분」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시골보건소에서 일한다. 서울 병원의 딸과 결혼,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 가난한 애인마저 버리고 있다.

역시 SBS의 「자별」에서도 가난한 청년의 사인서(송창민)는 0.01%의 기회를 잡기 위해

“남자는 의사... 여자는 미모”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버리고 중앙병원 과장 딸과 혼사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의 방영되고 있다.

한편 여자주인공들이 「미모」를 통해 부차적 아들과 결혼, 신분상승을 꾀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KBS2 「남자는 의로

남자 주인공 하나가 야망이 있어 버려 수틀로 「미녀」투입도 버섯...가치관 왜곡 심각

위의 달실(오연수)과 MBC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진주(신애라)가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 출신이지만 타고난 미모로 모델이 되어 결국

사랑과 돈을 함께 차지한다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다. SBS 「세남자 세여자」에서

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에게 따지를 맞던 혼자는

바람에 성형수술을 단행, 「절세미녀」가 됨으로써 원하는 사랑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당수의 TV 드라마에서 이같은 상황이 설정되는데 대해 서울 YMC A 시청자시민운동본부李承庭(承庭)은 「아무리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도

전전지 못한 가치관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承庭은 TV 드라마에서 「사랑」 「출세」 「부자」가 빠질 수는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분위기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金順德)